



한국 최초 육지면 재배지인 목포 고하도에 만개한 목화꽃.

목화꽃 만개 '목포 고하도' 관광명소로

한국 최초 육지면 재배지인 목포 고하도 목화밭이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된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 재배, 전

국으로 보급한 고하도 2312㎡ 부지에 목화밭을 조성했다. 이 밭에는 현재 목화가 활짝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목포시는 고하도 '조선 육지면

발상지비'와 함께 목화밭을 관광코스로 선정,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목화따기, 목화솜을 이용한 인형, 휴대전화 걸이 등 소품만들기 체험활동도 할 예

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른에게는 향수를, 자녀에게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 관광코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36년에 설치한 '조선 육지면 발상지비'에는 1904년 고하도에서 처음으로 육지면 재배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상생' 보다 '재산증식'

현대하이스코, 순천 중소기업 혈값 낙찰 물류창고 사용

대기업인 현대하이스코가 경매를 통해 순천의 중소기업에 혈값에 낙찰 받아 지역 여론이 급지 않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미미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보다는 재산 증식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2일 율촌산단 입주업체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C업체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납품 업체의 부도로 인한 채권 미회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경매에 들어갔다.

환경설비 및 플랜트 제조, 도장 전문업체인 C업체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면서 경매 개시 이후에 벌어진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3억여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C업체는 특히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기업 회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1순위 채권자인 은행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결국 경매를 막을 수 없었다.

경매가 진행되자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지난 5월 경매에 단독 참여해 53억여원에 이 업체를 낙찰받았다.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93억8000만원)과 그동안의 시설 투자 비용까지 계산하면 110억여원에 달하는 공장을 현대하이스코가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인수한 셈이다.

현대하이스코측은 공식적인 절차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스코측은 이 부지를 순천공장의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업체와 연관된 제조, 협력업체만해도 9곳에 이르고 근로자도 50여명에 달해 근로자 가족을 포함하면 200여명이 경매로 인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이 업체 근로자들은 최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현대 하이스코는 말로만하는 지역 사랑 행동으로 실천하라"며 상생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갖기도 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53)씨는 "관련도 없는 업종을 사실상 투자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들인 것은 오직 대기업의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마당에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무안공항, 개항이후 이용객 최다

상하이 등 10개 노선...8월말까지 10만명

전남도는 2일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과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 취항이 주된 이유다.

무안공항은 제주, 상하이, 베이징, 마닐라 등 4개 정기노선과 텐진, 심양 2개 정기성 전세기, 오사카, 마카오, 타이베이, 방콕 등 10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달게는 하루 6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무안공항 이용 국내의 여행객은 9만80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만1150

명)보다 39%나 늘어난 것이자 지난해 한해 이용객(9만6170명)보다도 2720명이 많은 수치다.

지난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공항은 개항 초기인 2008년 13만명을 정점으로 2009년 5만8000명, 2010년 10만명, 2011년 9만1000명, 지난해 9만6000명으로 연평균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추석 연휴와 겨울방학 특수 등을 예상하면 연말까지 15만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 지원, 관광업계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이용료와 항공사 착

륙료 감면, 면세점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공항 출입국 관리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 출장소 설치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마닐라 정기노선이 중단된 데 이어 중국 텐진행 부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이용객 증가에 차질도 우려된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연계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10월 F1대회와 추계·동계 관광노선 운항이 더해지면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여객이 이용하게 돼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수기자 bungju@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명랑해결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IPTV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흥 16	



가거도 바람막이 '우실 돌담'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에 조성된 우실 돌담. '우실'이란 말에서 비롯된 우실 돌담은 마을 출입구나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설치한 일종의 울타리로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신안군 제공)

해남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 숲 체험장' 운영

해남군이 가학산 자연휴양림에서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할 체험장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곤충과 친구 되어보기, 숲 속 작은 음악회, 자연비누 열매를 이용한 비눗방울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군은 해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유아 숲 체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집했다.

유아 숲 체험 신청을 못했거나 방문이 어려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찾아가는 숲 교실'을 운영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새얼굴

"창의력 갖춘 학생 교육에 중점"

김재오 목포교육장

"지역사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직원과 통(通)하는 교육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일 취임한 김재오(60) 목포교육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질을 갖추도록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할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목포교육의 행복수업을 새롭게

디자인 하겠다"며 "창의·인성교육과 방과후 교육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원중심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 출신으로 목포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김 교육장은 석교고 교장, 전남도학생교육원장, 곡성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